

완도군, 가리포 500주년 행사 ‘생생문화재’ 선정

‘조선수군과 노닐다’ 프로그램
2020년 문화재청 사업비 확보
문화유적 탐방 등 10차례 개최

완도군은 문화재청 주관 2020년도 생생 문화재 공모사업에 ‘가리포 500년 조선 수군과 노닐다’ 프로그램이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생생문화재는 문화재에 담긴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결합해 교육, 공연, 체험,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대상 문화재는 완도 청해진 유적(사적 제308호), 완도 묘당도 이충무공유적(사적 제114호), 완도 객사(전남도 문화재자료 제109호) 등이다.

청해진유적은 828년 장보고가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적을 소탕했던 곳으로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해상무역의 요충지였다.

묘당도 이충무공유적은 정유재란 당시 1598년 2월 고금도에 삼도수군통제영을



완도문화원이 주관한 ‘가리포 야행’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야행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설치하고 노랑해전을 승리로 이끈 곳이며 1963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됐다.

완도객사는 1521년 설치된 가리포진의 객사로 매월 초하루와 보름, 명절에 왕을 상징하는 전패를 모시고 대궐을 향해 망궐례를 올렸던 곳이다.

가리포진은 1521년 완도를 군내리 일원

에 설치된 서남해안의 중요한 수군진성이었다. 2021년이 되면 가리포진 설치 500주년을 맞는다.

이번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가리포 500년 조선 수군과 노닐다’는 망궐례 재현, 다도 체험, 판소리 배우기, 음악 콘서트, 문화유적 탐방 등으로 구성되며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총 10여 차례에 걸쳐 완도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가리포 와! 뽀뽀! FUN FUN! ▲가리포랑 놀자 ▲가리포 어디까지 알고 있니? 등 3가지 주제로 꾸며진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고산 윤선도 녹우당 안채.

해남 ‘고산문학축전’ 내일 개막

윤선도 유적지서...청소년 백일장·인문학콘서트 등 다양

고산문학대상, 시부문 나희덕씨 ‘파일명 서정시’ 수상

제19회 고산문학축전이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해남읍 고산 윤선도 유적지를 비롯해 해남문화원, 해남문화예술회관 등지에서 열린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시인으로 정철, 박인로와 더불어 조선 3대 시가인(詩歌人)으로 꼽히는 고산 윤선도는 한문학이 주류이던 당대 문단에 우리 글로 아름답고 독창적인 시를 발표하며 국문학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

행사는 11일 오전 10시 고산 윤선도 유적지에서 개최하는 ‘고산 청소년 사·서·화 백일장’과 ‘고산 청소년 백일장’을 시작으로 오후 3시부터는 고산문학대상자를 초청해 개최하는 ‘고산 인문학콘서트’가 땅끝순례문화관에서 열린다.

이어 오후 6시부터 전국 문인 200여 명과 함께하는 ‘고산문학의 밤’이 백련재에서 개최된다.

12일에는 미항사와 해남을 대표하는 시인인 고정희, 김남주 생가를 답사하는 ‘해남문화유적답사’가 이어지고, 해남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는 ‘고산시가 낭송대회’가 펼쳐진다.

황지우 고산문학축전 추진위원장은 “행사를 통해 문학과 대중이 함께 어우러져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고산문학대상은 시조부문 오승철 시인의 시집 ‘오카나와의 화살표’, 시부문 나희덕 시인의 시집 ‘파일명 서정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주)크라운·해태제과가 후원하는 신인상 시조부문에는 유순덕 시인의 시집 ‘구름위의 구두’ 시부문에는 권민경 시인의 시집 ‘베개는 얼마나 많은 꿈을 견뎌냈나’가 선정됐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완도군, 5급사무관 승진자에 교지형 임용장 수여 ‘눈길’

완도군의 특별한 임용장 수여가 눈길을 끌고 있다.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7일 상황실에서 5급 사무관 승진자 2명에게 종이를 전에 붙인 두루마리 형태의 교지형 임용장(사진)을 수여했다.

교지(敎旨)는 조선 시대 4품 이상 벼슬

에 오른 관리에게 수여했던 족자 형태의 임용장이다.

군은 행정에 중추적 역할을 할 사무관에게 초심을 잃지 않고, 선현들처럼 강직하고 청렴하게 군정에 임하라는 뜻으로 교지 형태의 임용장을 제작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진도군, 겨울대파 수급안정 대책 마련

농업인·유통인 등 추진단 구성...가공상품 개발 출시도

진도군이 겨울 대파(사진)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 7월 지자체, 농업, 농업단체, 산지유통인, 겨울대파 재배선도농업인 등으로 겨울채소 수급안정대책 추진단을 구성해 대파 수급, 가격 동향 등 관측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고품질 대파 생산,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방안 논의 등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 계약 재배를 위한 정책 방안에도 머리를 맞대고 있다.

대파 가공상품도 개발했다.

진도 울금 대파김치, 대파 피클 상품을

개발해 출시했다. 고부가가치 창출과 소비촉진을 통한 수급 안정에도 노력하고 있다.

2019년산 진도 겨울대파의 경우 1천 137ha로 전국 재배면적의 약 35%를 차지한다. 연간 5만여t의 겨울대파를 생산하는 최대 주산지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향후 대파 수급 안정 주요 대책으로 채소가격안정제 가입 확대를 통한 안정적 수급조절물량 확보, 가공상품 개발 및 업체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해남 ‘땅끝가족어울림센터’ 사업 본격 추진

사업비 32억 투입 영유아 보육·양육 서비스 제공

영유아 보육과 양육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해남 ‘땅끝가족어울림센터’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해남군은 정부의 2020년 생활 SOC 복합문화사업에 ‘땅끝가족어울림센터’ 사업이 선정돼 국비 32억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땅끝가족어울림센터는 해남읍 공공도서관 부지에 2021년까지 사업비 140여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연면적 4010㎡)로 건립된다.

공립 해남어린이집과 공동육아 나눔

터, 다함께 돌봄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입주한다.

특히 실내놀이터와 장난감도서관이 들어서고 보호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동네카페’ 등이 마련돼 육아 정보를 나누는 거점이 될 것으로 해남군은 기대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땅끝가족어울림센터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농촌 지역의 부족한 보육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풍암동, 동부 센트레빌, 근린상가, 매매/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상가 1층 4거리 코너 800세대 APT 정문 앞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기타 서비스 공간 10평 있음)
- 매매 - 7억원(대출 2억5천만 포함)
임대 - 보5천만원에 월세 350만원 문의. 010-6834-7400

